

이진홍 한국오리협회 전무

오리고기=국민건강식품 자리매김 책임감·열의 다하겠다

“한국오리협회 전무는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리고기가 국민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진홍 전무가 한국오리협회에 부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2월 7일 부임한 이진홍 전무는 건국대를 졸업하고 롯데햄을 거쳐 축협중앙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축산통이다.

1조원에 육박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던 오리산업이 A(조류인플루엔자)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사육제한으로 산업이 늪에 빠진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리농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오리협회의 안살림을 맡게 된 이진홍 전무를 만나 지난 100일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오리산업 활성화에 큰 책임

이 전무는 오리협회에 온지 100일이 조금 넘었지만 오리산업이 한우 등 타 축종에 비해 종사자가 많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 산업 또한 위축되고 있어 오리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오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리고기가 국민건강식품으로 또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전무는 농협의 축산경제 부문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다. 오리산업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회 생활 첫걸음을 육가공 회사에 시작하면서 축산 관련 사업과 인연을 맺은 이후 한우, 계란, 벌꿀 등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국내산 축산물을 잘 팔아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축종은 다르지만 생산, 도축, 가공 및 유통채널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오리농가 권익보호, 오리산업 발전 및 오리고기 판매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 전무는 특히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리고기 요리를 개발하고 바이어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점 및 식자재업체에 대한 공급채널을 강화해 오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풀어놓을 생각이다.

AI, 오리농가 죄인 취급

“오리산업은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제도적 개선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10년 넘게 AI를 겪으면서 다소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 시설이 AI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으며 우리 오리농가들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무는 특히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을 규정함에 따라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처음 시행한 사육제한의 경우 농가는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지만 계열업체 등 오리 관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미 기 시행한 사육 제한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유통채널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무는 겨울철 사육제한이야말로 임시방편의 AI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오리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겨울철마다 기약 없이 시행되는 사육제한에 오리농가들이 동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갈했다.

“오리 뿐만 아니라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거나 마리수를 줄이면 AI의 발생은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또한 그만큼 위축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규제일변도의 AI 방역대책은 지양하고 산업의 진흥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홍 전무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의학적 측면에서 벗어나 축산학적으로 AI 예방에 최적화된 축사모델의 개발이든지 사양학적 측면에서 가금류의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한다든지, 축사 내 기온과 AI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이 전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의한 오리농가 10개년 중장기 특별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리협회가 농식품부에 건의한 오리농가 10개년 중장기 특별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전무는 앞으로도 협회의 살림살이를 맡는 전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과 회원이 화합해 위축되는 오리산업 환경 개선에 신속히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관련 업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리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